

청소년 찬양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내용 분석 - 래드(George. E. Ladd)의 하나님 나라 이해 중심으로 -

현은자*
이 란**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에서 자주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개혁주의 교단 소속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107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제와 관련하여 교회 예배나 모임 중 자주 부르는 찬양을 추천하도록 설문하여 총 31곡을 그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표집된 찬양 가사는 의미 단위로 분절된 뒤, 코딩과 주제화, 범주화 과정을 거쳐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범주화된 내용들은 성경적 관점과 래드(Ladd, 1982; 1997; 2000)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성, 현재성, 그리고 이중성의 이해가 총체적이며 다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 중 미래성에 관한 찬양의 비중이 다소 두드러지는 점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이라는 래드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둘째로 찬양 가사에 반영된 하나님 나라의 묘사적 표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두 측면을 공통적으로 공유하면서 두 나라가 각각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점과 비밀스럽게 전개되는 점, 그리고 그의 구현에 있어서 각각 완전성과 제한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그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서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유일한 조건임이 강조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 성장해 가나 이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동역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결단이 공로성이 아니라 당위성의 측면에서 가사 속에 다수 구현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찬양 가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기도로써 드러지는 찬양의 속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그 나라를 앞당기는 간절한 행위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틀에 적합하지 않은 가사들은 성경과 래드의 이해에 기초를 두고 비판적으로 논의되었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선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주제어: 하나님 나라, 청소년 찬양, 미래성, 현재성, 래드

* 주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 교신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2015년 1월 12일 접수, 2월 15일 최종수정, 2월 22일 게재확정

I. 서론

한국 교회는 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갱신과 부흥을 위해 예배 중 찬양의 비중을 강화해 왔다. 찬양은 예배에 영감을 주고, 예배를 촉진시키며, 예배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풍부하게 한다(김영한, 1988: 35). 이러한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당위임과 동시에(시편 43:21; 시편 147:5)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며 굳건한 믿음을 투영하고 마땅히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게 하는 신앙 교육적 성격도 가진다(시편 145:4; 골로새서 3:16). 강소라(2008: 51)는 예배 중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역동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공동체와 후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기제이지만 또한 동시에 성도들 간의 권면과 기억을 통한 교육,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이번(Rayburn, 1904: 85) 역시 예배 가운데 사용된 찬양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자 하는 뜨겁고 열렬한 열심과 더불어 인간의 가슴을 강렬하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클락과 저크(Clark and Zuck, 1975, 신청기 역, 1989: 189-190)는 특별히 교회 찬양은 성도들을 위한 중요한 신학 개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면서 훌륭한 찬양들은 그 자체가 교리 공부의 과정이라고 말하였고 교리 개념을 노래로 부르면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고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여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을 송축함과 동시에 인간의 내면과 삶의 변화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적이고도 성도 상호 간의 역동적인 권면의 의미를 가진 예배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장복(1985: 124)은 찬양이 성도들의 주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고양되도록 찬양을 선별하여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배 중 찬양을 통해 청소년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으며(역대상 16:8-9; 이사야 12:5) 죄에서 떠날 수 있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열왕기상 8:35). 이러한 맥락에서 김영한(2008: 26; 31)도 찬양은 “신앙적 덕성이 함양”되도록 구조화되어야 하며 피상적인 감성이 아닌 진리 된 “말씀의 묵상과 회개와 성결에의 결단이 동반”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찬양 가사는 정확한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경

적이어서 청소년 성도들의 성결한 믿음 생활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찬양을 할 때 청소년 성도들은 찬양과 구속의 관계, 즉 그 구속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의 중심 주제임을 이해할 수 있다(문용식, 2003: 137-143). 문용식은 첫 찬양의 시초가 그러했듯이(출애굽기 15: 1-2)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완벽한 성취 사건”인 구속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임을 강조하였고 찬양의 내용은 “창조와 타락, 화목과 용서, 재생과 회복이라는 매 계기들을 내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문용식, 2003: 136). 이러한 주제들을 균형 있게 포함하면서 구조화된 찬양을 선포하고 제시하는 교회의 사역은 이들 성도들이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찬양하게 돕는 일이다(박희석, 2003: 82-83). 찬양 그 자체는 다가 올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새롭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위할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우는 역할에도 동력한다(요한계시록 5:12-13; 7:12; 19:5). 즉, 찬양은 하나님 사역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계기들을 풍성하게 포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구속과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본질을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늘 나라(天國, Kingdom of heaven)는 공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神國, Kingdom of God)와 서로 바꾸어 쓰고 있으므로 두 용어의 관계는 동의어로 이해된다(이승구, 2000: 135; 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69).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하늘로 바꾸어 사용하던 유대적 관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69; Vos, 1951: 415). 이러한 관점에서 하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피적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찬양을 살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다(Ladd, 1982: 180). 이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한 가지를 생략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설명하려 한다면 실패한 설명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성격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종말론”에 있지만(Berkhof, 1951: 18; Ridderbos, 1957, 오광만 역, 1992: 73; Ladd, 1959, 신성수 역, 1982: 181) 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속에서 이미 시작된 승리의 나라이며 “다가올 시대의 능력이 현재의 악한 시대 속으로 들어온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나라이다(Ladd, 1959, 신성수 역, 1982: 70). 이 두 종말론 사

이의 관계성은 지금 세대의 하나님 나라 축복들이 다가올 세대의 “하나님 나라 지복에 대한 보증이며 담보물”이라는 점이다(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36).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대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능력에서 더 크고 풍요로운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 가게 되는 것이다(히브리서 6:5). 따라서 마땅히 교회에서 선정하여 부르는 찬양들이 두 하나님 나라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종말에 성취될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만 자신의 연령대를 위해 제작된 찬송가나 CCM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를 위해 작곡된 다양한 종류의 찬송가와 CCM을 선호하고 있으며, 찬양 곡 자체에 대한 선호도 차이보다는 찬양하는 방법이나 악기 등의 사용 여부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좀 더 유의미하였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주지은, 2007: 22). 이러한 주지은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첫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찬양의 범위가 난이도와 시대성을 가로지르며 매우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둘째, 선호도라고 하는 감정적 요소는 가사와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 내용의 적절성 문제와는 다소 무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선호도에 의존한 찬양 선곡이 청소년들의 영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에(이철, 2006: 299-300),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진리에 입각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찬양의 본질을 인식하면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찬양을 선곡하여 예배에서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찬양 선곡자 자신이 찬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가 투영된 찬양을 선곡하여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일은 교육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예배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 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찬양 가사 속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해석하고 그 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히 이 연구는 연구의 집중도를 위하여 청소년 입장에서 선호도나 그들의 발달학적 이해에 중점을 둔 경험적 방법보다 찬양 가사의 진리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석하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성경 속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경륜과 통찰이 찬양 가사 속에 정확히 구현되어 있는가를 조명하여 교회에서 찬양을 선곡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찬양 가사에 반영된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성경적인 관점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석한 래드(Ladd)의 견해와의 관련성이 어떠한지 분석하되, 청소년들이 그들의 예배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들에는 성경적 이해를 따르지 않는 찬양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본 내용 분석에서 찬양의 가사에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신앙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가사이나 부르지 않아 사장된 찬양들보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는 않으나 자주 불리는 찬양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더욱 크다는 이해를 가질 때에 이처럼 표집된 찬양의 실제적 영향력과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주일학교 예배에서 찬양을 선곡하는 사역자들이 청소년 성도의 신앙 교육의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조지 엘렌 래드(George E. Ladd)의 하나님 나라

래드(Ladd)는 풀러 신학교에서 신약신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저명한 저작을 다수 남겼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번역 출판된 그의 도서가 많으며 이 분야에서는 권위 있는 신학자라 할 수 있다. 래드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Ladd, 2000: 129).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마태복음 4:23)” 라는 말로 분명하게 요약하며 시작한다.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를 그 주제로 하며(마태복음 5:3; 5:10),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비유도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마태복음 13:11). 래드(Ladd, 1978, 이승구 역, 2000: 130)에 따르면 예수님 제자들 간의 교제에 관한 말씀도, 감람산의 대강화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제와 그 임재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나라는 왕국(Kingdom)을 의미하는데 왕국이란 구약성경 용어인 말쿠트라는 히브리어와 바실레이아라는 신약성경의 헬라어의 의미를 종합해볼 때 본래 왕의 지위, 권위, 왕이 행사하는 통치권을 의미한다(Ladd, 1959, 신성수 역, 1982: 19-20). 이처럼 통치 개념으로 왕국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비밀스럽게 임하는 현재와, 그 통치가 외적인 영광과 권능으로 도래할 미래를 이중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곳에 현재적인 하나님 통치가

입하려면 현재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무력화되는 역사가 필요한데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핵심 사역이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명백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이전, 곧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치료 사역이 시작되었고(마태복음 4:23-24), 그 중에서도 귀신들을 내어 쫓는 역사가 가장 특징적인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마가복음 1:23-27). 사탄들이 쫓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2:24-28).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사단의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심으로써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외적인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함으로써 임하는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일어나며 새 하늘과 새 땅, 곧 오는 세대가 열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상 하나님의 전면적인 통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로 규정되고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뜻의 실현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축복들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새롭고 전혀 다른 존재 질서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Ladd, 1952, 원광연 역, 1997: 25).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경 신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구현되며 그 나라의 백성 모두가 그 통치를 전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나라이다. 또한 그 곳은 산상수훈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들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요한복음 6:40),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면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요한계시록 22:4),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장소이다(요한계시록 5:12-13; 7:12; 19:5).

한편,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그 본래적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완전한 축복을 결코 완성된 형태로 경험할 수 없는 곳이다(Ladd, 1959, 신성수 역, 1982: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오는 세대의 능력을 맛보고 이로써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세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로마서 12:2). 이러한 위대한 변화의 힘은

오는 세대의 절대적 특징이지만 이 악한 세대에도 침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현재의 나라는 비밀스럽고도 권유하는 힘으로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마태복음 13장 등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천국의 비유들은 머지않아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예기치 않은 형태로 비밀스럽게, 그러나 성도들 삶 가운데 미리 실제적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Ladd, 1959, 신성수 역, 1982: 70). 그 나라가 비밀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여기에 현존하나 아직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또 가시적이지는 않으나 스스로 은연중에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래드(Ladd, 1959, 신성수 역, 1982: 47)는 이 세대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나 선한 행위 혹은 노력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세대 내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이해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나라는 스스로의 생명력에 의하여 성장하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구현은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진입해 들어오심으로써 홀연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극명하게 대립시키지 않는다(Ladd, 1978, 이승구 역, 2000: 142). 여기에는 이 악한 세대에 침투해 들어 온, 오는 세대의 축복이 존재한다. 성도들은 아직은 썩을 몸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다(요한복음 17:3). 따라서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로마서 12:2).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현재를 살아가고 새 시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며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다(히브리서 6:5).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는 “두 시간의 중간(between the times)” 즉 악한 세대와 오는 세대의 성격이 겹쳐진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Ladd, 1978, 이승구 역, 2000: 149).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임하며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성도들의 완전한 의의 수행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수단이나 길로서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다른 방식으로 명백하게 드러낸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의 강조이며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다(에베소서 2:9;

갈라디아서 2:16). 래드(Ladd, 1952, 원광연 역, 1997: 92)는 산상수훈의 완전치의 의의 요구는 현 세대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삶의 양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은 열매가 맺히고 의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러한 통치와 실현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마태복음 5:13-16).

더구나 재림의 그 날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시점이다. 또 양과 염소의 구분은 그 날이 되어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래드(Ladd, 1952, 원광연 역, 1997: 599-600)는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하나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임박한 사건이지만 그 때는 알 수 없다고 모호함에 남겨 놓는 것은 일종의 모순을 통한 긴장과 그 나라에 대한 대비 의식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식에서 발현되는 삶에의 결단은 이 땅에서의 성화 과정을 의미하는 고난을 견디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제자도와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형태로 이어진다. 나아가 하나님나라를 위한 삶의 결단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양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베드로후서 3:11-12; 디모데후서 4:8). 즉, 성도들의 경건의 삶과 거룩한 삶, 그리고 복음전파와 제자도의 삶이 그 사모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대망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 나라를 위해 더욱 충성되게 한다.

이러한 성경말씀과 이를 해석한 래드의 하나님 나라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이 두 나라는 전혀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그 본질 면에서 공통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현재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이며 이를 더욱 사모하게 만든다는 관점을 찬양 가사 분석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찬양은 다만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이 그 가사 속에서 성경적 메시지를 얻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는 이해를 가지고, 찬양 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결단, 소망, 확신 등의 요소들을 발견하여 그 적절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하나님나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이를 해석한 래드의 이해는 분석과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요약적으로 도식화되어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각 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III. 찬양 분석 절차

본 연구는 먼저 예장 합동측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주일학교 청소년 담당 교역자 107인에게 청소년들의 예배에서 자주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들을 설문하였다. 청소년 해당 연령에 관하여서는 법령마다 포함 범위가 다양하나 이 연구에서는 주일학교 기준 중고등부 연령, 즉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이들에게 부과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교회 청소년 부서에서 최근 많이 부르는 하나님 나라(주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두 곡 이상 써 주십시오.”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들은 CCM 등의 대중화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작곡된 찬양뿐 아니라 찬송가, CCM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찬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주지은, 2007: 22), 설문을 제시함에 있어 찬양의 장르를 제한하거나 찬양의 특정 범위를 부과하지 않았다. 특별히 찬양 곡은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작곡되거나 번역되는 일이 많지는 않으며 찬양 곡들의 수준이나 내용 타당도, 추천 연령대를 마련해줄 관리 시스템이나 검열의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독교 문화산업에 의하여 소비되는 과정을 거쳐 개개인이나 사역자들에 의해 선곡되지 않으면 사장(死藏)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서의 출판관행과는 상이하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표집 과정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가사의 적절성 판단이, 찬양하는 개개인 성도나 예배 선곡의 절차를 관리하는 사역자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찬양을 표집함에 있어 특정한 커리큘럼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있어 찬양은 그 ‘사용성’에 표집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으로 찬양이 선정되고 또 사용될 때 그 찬양 가사의 내용이 성경의 관점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가사들은 믿음의 내용을 가사로 표현하거나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사가와 선곡자 모두에 의해 여러 차례 굴절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의 설문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곳에 표집된 찬양들은 청소년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사역자들에 의해 선곡되고 예배와 모임 중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찬양

들이라는 실천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이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이들 107인 중 무응답자 4인을 제외하면 총 103인의 대답 중 ‘세 곡 이상’ 응답한 자는 12인(약 12%)에 불과하였다. 이들 중 ‘두 곡’ 추천자는 63명(약 61%), ‘한 곡’ 추천자는 28명(약 27%)이었다. 또한 이들 응답된 찬양 중 가장 많이 중복률을 보인 찬양은 ‘천국은 마치(76회, 74.5%),’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43회, 42%),’ 그리고 ‘주의 나라는(27회, 26%)’이었다.

이와 같이 추천받은 곡들 중 중복되는 곡들을 제외한 총 31곡의 찬양 곡에는 최근의 유명 CCM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예전에 불리던 복음송가, 개정 찬송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의 방향과 일치하는 표집이다. 즉, 찬양의 장르나 제작년도에 규정을 두기보다 현재 사역자들에 의하여 선택되어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 불리지는 찬양들을 표집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선정된 것이다.

정리하면, 본 분석대상 찬양들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예배에서 현재 자주 부르고 있는 찬양이라고 지명된 곡들로써 현재 청소년 성도들의 의식과 신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곡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찬양 곡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적 경향성을 살펴 앞서 논의한 두 왕국에 대한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총체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고찰해 보는 것은 신앙 교육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해된다. 분석된 곡들의 제목과 작사가명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분석대상 찬양 곡명

| | 찬양 제목(첫줄) | 작사가 |
|----|-----------------------------------|--------------|
| 1 |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 소망의 바다 |
| 2 | 하나님 나라가 커지네. | 미상 |
| 3 | 하늘 나라 영광나라 | 김석균 |
| 4 |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 고형원 |
| 5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F. J. Crosby |
| 6 |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 파워울동 |
| 7 | 주의 나라가 임할 때 | 심형진 |
| 8 | 천국은 마치 | 파워울동 |
| 9 |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천국에 가보자) | 유경희 |
| 10 |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 김준영 |

| | | |
|----|----------------------------|---------------|
| 11 | 하나님 나라는 | H. Chang |
| 12 |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진실이 눈짓하는) | 황예레미야 |
| 13 |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 D. Fellingham |
| 14 | 미가의 그날 (그날이 오면은) | 김다윗 |
| 15 | 그날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 예레미 |
| 16 | Hero of Heaven | 서혜영 |
| 17 | 그 때에 (모두 구원 얻으리) | 한계수 |
| 18 | 주의 나라 임하도록 (이 나라 모든 백성들) | 세연 |
| 19 | 주의 나라 세우소서. (어두운 세상에) | 김준영 |
| 20 |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한 걸음 한 걸음) | 백승남 |
| 21 | 구원의 강 (호르네) | 고형원 |
| 22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고형원 |
| 23 | 구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 최은철 |
| 24 | 주의 나라는 (주의 큰 능력) | 이창민, 함은진 |
| 25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고형원 |
| 26 | 믿음으로 서리라 (이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 정선경, 황귀희 |
| 27 |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 고형원 |
| 28 | 그 날이 도적같이 | 미상 |
| 29 |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 유지은 |
| 30 | 주의 나라 오리라 | B. Fielding |
| 31 | 그 날에 이르러 | H. Stephen |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담은 찬양 곡들의 내용 분석은 찬양의 가사 부분만 추출되어 그 내용에 기반을 두고 연구자 2인에 의해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가사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와 표현의 적절성은 성경말씀과 이를 해석한 래드(Ladd)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 토대를 두고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찬양 가사에 반영된 하나님 나라의 묘사에 관한 심층적 이해와 그 기술(d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분석의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Denzin, 1989: 31). 이는 해석학적 접근(hermeneutic)으로서 각 가사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경 및 래드의 이해와 비교, 고찰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¹⁾ 이를 위하여 연구자 2인은 먼저 래드의 하나님

1) 해석학적 접근법은 의미란 상호주관적으로 생성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해석적 관점을 중시하는 연구 방법이다(Berthon et al., 2002: 416). 이 접근법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성경 비평, 비교 인류학, 역사, 언어학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Appleyard, 1991: 149) 텍스트 질적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성경말씀에 대한 래드의 해석적 이해를 바탕으로 찬양텍스트에 대한 성경 해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된다.

나라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난 후, 31곡의 표집 된 찬양 곡들을 깊이 있게 반복하여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내용에 대한 해석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해석적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찬양 가사에 반영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분석해내는 과정에는 서술어에 쓰인 시제, 부사(장차, 앞으로, 그날, 지금, 이미 등), 그리고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고려되었는데 분류의 과정에서 두 나라의 성격에 모두 포함되거나 어느 한 나라에 명백히 속한다고 말하기가 모호할 경우 두 나라에 대한 이중성을 의도하여 작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 3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본격적인 내용 분석에 있어 각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 번 읽은 후 의미단위를 분절하여 개방코딩하고 이를 다시 주제별로 묶은 후 이를 상위 주제로 범주화하는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여 그 해석적 오류를 줄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사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상학적 성격’,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결단’,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과 같은 범주들로 정리되었고 이것이 분석의 틀로서 제시된 래드의 하나님 나라 개념과 비교하여 논의되었다. 각각 그 범주화된 주제의 의미와 신앙 교육적 가치 등이 고찰되었다.

분석된 찬양 가사에 대한 내용 분석 도구로는 일차적으로 성경을 기본 잣대로 하되 래드(Ladd)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과 설명을 도식화하여 사용하였다. 특별히 래드가 중요하게 언급하였던 미래의 현존,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합적 조망에 대한 이해가 이들 찬양 곡들에 충분히 나타나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찬양에 나타난 그 두 나라에 대한 현상학적 묘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삶의 결단, 소망과 확신이라는 범주적 차원에서 그 내용적 적절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의미 이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가사를 지적하여 논의하였고 이러한 가사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의미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찬양 하나하나의 심층 분석보다 집단으로서의 찬양 가사의 경향 분석이 가지는 이점은 현재 청소년 사이에 많이 불리지는 찬양의 전체적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며, 보통 청소년들의 예배에서 사용되는 찬양들이 단 한 곡에 제한되지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다만 교회에서뿐 아니라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찬양들을 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이들 찬양들이 하나의 거대 단위 구조로서 의미 형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처럼 1차 해석되어 제시된 자료는 동료연구자와 선임연구자의 추적 검사를 통해 찬양의 데이터 근거 여부, 분석적 기술과 타당도, 해석의 질, 추론의 논리성, 그리고 연구자 주관성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거쳤다(김영천, 2013: 635). 이들 제 3의 연구자들은 기록된 내용의 검토 작업의 절차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들의 해석적 타당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IV. 찬양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1.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층위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의 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도들에게 임했으며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이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곳에서의 영생 체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이 충만하게 임할 재림의 그 날을 더욱 더 사모하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형태로 임하지 않았으며 성도들은 다가올 세대의 종말을 회구하며 살아간다. 래드(Ladd, 1952, 원광연 역, 1997: 283-398)는 이러한 두 세대 간의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래의 현존”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으며 “미래적 종말”과 “실현된 종말”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된 형태로 충만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미래 시대의 예수는 “천상의 인자”가 될 것이나 그는 이미 그 나라의 “깨끗고 들어오는 현재의 능력의 대리자”인 것이다(Ladd, 1952, 원광연 역, 1997: 305). 따라서 이 말은 현세의 나라가 성도들의 노력으로 서서히 진화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가 홀연히, 속히, 갑자기 그리고 완전하게 임하면서 새롭게 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묶는 현상으로서의 증거,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발휘되고 있는 곳 어디에서나 미래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 역시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 연구가 표집 한 31개의 찬양을 미래와 현재라는 두 시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과정에서 두 시점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찬양 곡은 이를 이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중성’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의 종말에 홀연히 임할 미래적 시점으로 묘사한 곡은 총 18곡으로 58.1%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에 관한 찬양이 9곡(29.0%)이었고 두 나라를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는 찬양곡도 적지 않았다(4곡, 12.9%).

〈표 2〉 하나님 나라의 시점

| 시점 | 미래성 | 현존성 | 이중성 | 계 |
|--------|------------|-----------|-----------|-----------|
| 편수 (%) | 18 (58.1%) | 9 (29.0%) | 4 (12.9%) | 31 (100%) |

먼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다루고 있는 찬양들은 <미가의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주의 나라 임하도록>, <구원>, <그 날에>, <구원의 강>, <주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그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날이 도적 같이> 등이었다. 이들 찬양들은 “그 날”이나 “마지막 날” 등의 미래에 관한 부사적 표현이나 “오리라” “가는 나라” 등의 미래적 종결 및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찬양들이 해당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해가 드러났다고 연구자 간 해석적 합의가 이루어진 찬양들이다. 좀 더 상세한 내용 분석은 이후 가사 내용 분석에서 면밀하게 논의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을 다루고 있는 찬양들에는 <하나님 나라가 커지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은 마치>, <주의 나라는> 등이 해당되었다. 이들 찬양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곳”, “이 땅” 등의 부사적 표현으로 현재적 의미를 드러내거나 “하나님 나라가 커지네”, “임했네” 등의 현재 진행이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등을 고려하여 분석된 것이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천국의 비유를 인용하는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이루어졌다는 이해를 드러내는 찬양 역시 이 범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하나님 나라가 이중적으로 표현된 찬양들은 제3의 범주로 분류되었

다. 그 예로서 <하늘 소망>의 경우는 “내 주님 계신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을 소망하나, 이와 동시에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라는 표현을 통해 이곳에서 이미 저 하늘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의 경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2절이 시작되면 “여전히 아픔과 행복”이 공존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라는 고지를 통해 또 다른 현재적 차원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중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 나라이므로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은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따라서 세 번째 범주로 편성된 찬양들은 두 나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나라로 가고자 소망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찬양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 31개의 찬양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점은 현재와 미래, 또는 두 시점 모두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비중 면에서 보다 궁극적으로 미래적 종말에 대한 소망에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는 찬양이더라도 궁극적으로 미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내용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미래에 의하여 소급되어 전달되고 통치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으며(Ridderbos, 1957, 오광만 역, 1992: 73)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보다 궁극적인 소망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래드(Ladd, 1959, 신성수 역, 1982: 181)의 이해를 위의 찬양들의 내용과 구성이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되었다.

2. 하나님 나라의 현상학적 성격

래드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학적 성격을 두 층위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이의 내용은 앞의 장에서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찬양의 하나님 나라의 현상학적 표현들을 해석하고 논의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래드의 이해를 그 현상학적 특징 부분만 도식화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먼저 두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

라이며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이며 전면적인 통치로 임하는 반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설득에 의해 확장되는 비밀스러운 전개, 그리고 자생적 확장의 특징을 가진다. 두 나라 모두 의의 실현이라는 가능성을 가지나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경우, 의가 완전하게 부여되지만 현재는 제한적으로 실현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 부여되나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영생을 반영하는 육체의 잠정적 치유만이 가능하다는 차이를 가진다.

〈표 3〉 두 층위의 하나님 나라의 현상학적 특징에 관한 해석적 기준

| 범주 | 주제 | 해석적 차이점 | | 공통점 |
|---------|-------------|--|---|-----------|
| | | 현재적 하나님 나라 | 미래적 하나님 나라 | |
| 현상학적 특징 | 비밀성과 가시적 임재 |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전개와 설득을 통한 자생적 확장. |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이고 전면적 임재와 그 나라의 완성 | 하나님의 통치 |
| | 제한성과 완전성의 의 | 의의 제한적 실현 | 의의 완전한 실현 | 하나님과 의 교제 |
| | 치유와 영생 | 육체의 한계의 부분적 갱신 | 영생의 부여 | |

이를 토대로 분석 찬양 속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볼 때에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확연히 다른 부분도 발견되었다. 두 나라에 대한 이중적 의미가 드러난 찬양에 있어 그 나라의 정확한 특성을 분석하기에 의미가 모호하고 이중적인 부분은 두 나라의 현상학적 묘사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었다. 이들을 보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가시적 통치’, ‘완전한 치유와 영생’, ‘하나님 나라의 의의 실현’이라는 세 핵심 주제가 발견되었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범주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파생적 현상’,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장’, ‘하나님 나라의 치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라고 하는 총 4개의 핵심 주제가 발견되었다. 이들 가사 내용을 개방 코딩하여 주제화한 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하나님 나라의 현상학적 특징에 관한 찬양 가사 범주화

| 범주 | 주제 | 의미 요소 |
|------------------|--------------------------|--|
| 미래적 하나님 나라 | 하나님의 가시적 통치 |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는 곳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곳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합성이 들리는 곳 모든 백성들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곳 주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세상이 보게 되는 곳 기뻐하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와 찬양소리가 있는 곳 열방 모든 민족이 주를 보고 경배하는 곳 열방과 세계가 주 보좌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곳 하늘 보좌 영광의 주님께 나라들은 일어나 경배하는 곳 하늘 성소 휘장은 열리고 구원 받은 영혼들 찬양하는 곳 주의 영광 온 세상 가득한 곳 이 세상을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날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그 날 뒤늦은 후회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곳 |
| | 완전한 치유와 영생 | 눈물 없는 곳, 편히 쉴 곳, 아픔과 슬픔 없는 곳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주 보혈 생명의 강 온 세상 나라를 치유하는 곳 완전하게 변할 곳, 사망 없는 곳, 죽었던 영혼들 살리시는 곳 영원한 삶을 누릴 영혼 깨어나는 곳 완전한 삶을 누릴 영혼 깨어나 수많은 천사들도 기뻐하는 곳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들을 내 아버지 만나는 곳 생명책에 기록된 자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곳 지혜 있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곳 |
| | 하나님 나라의 의의 실현 | 사랑과 진실이 눈짓하는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하나님 나라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사랑하며 사는 나라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는 나라 |
| 현재적 하나님 나라 | 하나님의 통치와 파생적 현상 | 예배가 회복되는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 통치자의 자유가 선포되는 곳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 땅을 벗어나며 살면서도 하늘을 디디며 살 수 있는 곳 |
| |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장 |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땅에 감추인 보석과 같은 곳 하나님 나라가 커지네.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
| | 하나님 나라의 치유 |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는 곳 |
| |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 | 어둔 세상 빛이 되어 섬기며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 날에 흠 없기 원하는 사람들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먼저 그 나라 뜻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

우선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표현에 있어 가장 많은 구절에서 발견된 주제는 ‘하나님의 가시적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점이 위의 <표 4>에서 확인된다. 이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는 곳”,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곳”, “모든 백성들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곳”, “열방 모든 민족이 주를 보고 경배하는 곳” 등의 가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날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임하는” 날이 된다는 점도 명백히 함으로써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며, 재림은 부활과 심판이 공존하는 사건이라는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래드의 하나님 나라 이해 중 첫 번째 항목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임재’라는 측면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가사의 비중으로서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미 실현된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현상적 특징에 대한 가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파생된 현상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공통으로 취하는 특징이다. 그의 통치가 인정되는 곳은 곧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으로서 “예배가 회복되는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 “통치자의 자유가 선포되는 곳”,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 “땅을 벗어나 살면서도 하늘을 디디며 살 수 있는 곳”으로서 묘사된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이 “예배” 중에, “기적”과 선포된 “자유”의 형태로 임하나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이해가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남아있다는 표현과 “땅을 벗어나며 살아간다는 한계 인식에서 드러난다. 이 점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있어 가장 이질적인 부분인 것이 확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 비밀스럽게 존재한다는 점이 가사 속 천국의 비유 인유를 통하여 강조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무도 모르는 보석” 같은 가사나 “이 땅에 감추인 보석과 같은 곳”이라는 표현 등이 그것이다. 이는 앞서 래드의 이해를 도식화한 <표 3>에서 확인하였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측면을 드러낸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현재 시각적으로는 “감추인” 존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석이며 “그 가치를 아는 자는 모든 것 팔아서 얻기를” 원하게 된다는 이해가 가사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커지네”의 경우는 하나님의 천국 비유 중 누룩의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 앞서 유목화 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확장을 설명하면서 래드(Ladd, 1952, 원광연 역, 1997: 59-65)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성장해 간다는 인식을 경계하였고 오히려 이 나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고 때가 되면 스스로의 생명력에 의해 완성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미래 나라의 씨앗은 현재에 묻혀 있지만 우리가 이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에 좌우되거나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 구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스스로 성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논지이다. 그리하여 그 은혜의 왕국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성장하고 진행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서 급기야 영광의 왕국으로 전면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해이다. 이러한 해석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커지네”라는 찬양은 “전도”와 “복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커진다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성도들의 공로를 주장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라는 가사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이 땅 위에 그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이러한 이해는 자칫 청소년 성도들이 우리 손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른 가사를 논의할 때 좀 더 강조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루겠다는 지나친 열심을 드러낸 가사는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는 이해를 가져오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생적 확장이라는 측면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찬양의 가사는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고 세상에서 흘린 눈물은 주님이 친히 씻겨주시므로(요한계시록 7:17; 21:4). “해됨도 애통도 없는” 나라로 표현한다는 점도 확인된다(이사야 11:9). 이러한 애통함이 없는 나라가 되는 가장 큰 기저에는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승리로 인해 ‘영생’이라고 하는 완전한 삶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이해가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찬양의 내용은 래드가 설명한 하나님나라에 관한 특징적 범주인 ‘영생의 부여’라는 측면을 정확하게 드러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완전하게 변할 곳, 사망 없는 곳”,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라는 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술되었다.

나아가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과 “내 아버지 만나는 곳”이라는 찬양 가사는 또한 ‘영생의 부여’라는 주제의 확장적 설명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며 이 점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점을 위의 래드의 관점을 요약한 표에서 확인하였다(Ladd, 1952, 원광연역, 1997: 482). 그러나 이러한 교제에는 다만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와 후손들과의 교제도 포함되게 된다. 이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땅에 견인되어진 모든 이들과의 만남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래드가 성경을 이해하여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 ‘영생의 부여’는 이들 분석대상 찬양 곡 중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었으며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표현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찬양에도 영생이라는 축복의 제한적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육체적 치유의 이해가 드러났다.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라는 가사가 그것이다. 앞서 살펴본 래드의 하나님 나라의 분석적 기준인 ‘육체적 한계의 부분적 갱신’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으며(Ladd, 1952, 원광연역, 1997: 486)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권위에 토대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소경이 눈을 떴다는 점을 성경적 원리로 제시해 볼 수 있다(마태복음 21:14; 마태복음 15:31; 요한복음 15:43-44). 이는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던 하나님 나라의 실존적 현상이었다(사도행전 3:6; 사도행전 9:37-40; 사도행전 20:9-12). 래드(Ladd, 1952, 원광연역, 1997: 441)는 마태복음 11장을 언급하며 메시아의 구원에 속한 이러한 치유의 항목들이 그 의미가 경한 것에서 중한 것으로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눈먼 자가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것”의 순서이므로 마지막 부분인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표적 중의 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육체의 치유’라는 현상적 증거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자체에 의미가 치중되어 있지 않으며 구원이 영육 간의 전인적인 것으로서 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와 담보물, 즉 그 반영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모든 병과 사망이 인간을 위협하지 않는 온전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발견된다. 또 이러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육체의 부분적 갱신’에 대한 찬양의 비중이 ‘영생’을 다루는 찬양의 비중보다 높지 않다는 점은 래드의 성경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의의 차원에 있어서도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의 가사들 사이에 유사성과 이질성 모두가 드러났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가사를 살펴보면 “사랑과 진실이 눈짓하는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하나님 나라”,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사랑하며 사는 나라”,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는 나라”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묘사에 사용된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 기쁨과 생명 등의 속성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의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단어들로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성취된 사실을 선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경우는 “어둔 세상 빛이 되어 섬기며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확인되는 바,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경우에서처럼 외부에서 부과되어 선언적으로 성취된 의에 대한 표현보다는 하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사의 재현은 래드가 언급한 ‘의의 실현의 제한성’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의 실현은 아직은 “믿음”의 영역이며 “하늘 뜻”의 속성이지만 이 길을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선한 길”로 규정하며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찬양 곡들이 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의’의 측면은 이미 이루어진 현상적 사실을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과(미래적 하나님 나라) 믿음과 소망을 발현하는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측면(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별점이 나타난다고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 본질상 동일하지만 전자가 의의 구현이 완전한 형태로 위로부터 주어진다면 후자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악과 투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면적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백성은 본질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에 순종하는 성도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의의 실현 가능성을 공통점을 가지는 것으로 본 분석대상 찬양들은 이러한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

3.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결단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성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말씀 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과 동기 수준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는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하지 않다는 관점과 가능하기도 하다는 모순적 관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의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되면 자연적으로 구현될 의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의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을 현재의 삶에 반영하고 이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중생의 기적이 내면적으로 형성”된다(Ladd, 1952, 원광연역, 1997: 92). 또한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마태복음 5:13).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삶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삶의 형태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의의 삶이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되거나 그 공로(功勞)로서의 의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당위적(當爲的) 삶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요구 및 결단과 관련한 래드의 성경적 이해는 다음의 4가지 주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도식화한 <표 5>는 앞서 제시한 래드의 하나님 나라 이해 중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결단 부분만을 추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의가 외부로부터 부과되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여기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결단의 의미만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표 5>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결단에 관한 해석적 기준

| 범주 | 주제 | 해석적 기준 |
|----------------|------------|------------------------------------|
|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결단 | 믿음을 통한 의 |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연적으로 얻어지는 의 |
| | 고난을 통한 성화 | 여전히 경험하는 고난과 그 성화로써의 의미 |
| | 요구와 결단 | 복음전파의 삶으로 부르심 제자도 및 소명의 삶으로 부르심 |
| | 공로 주장의 부당성 | 공로성이 없는, 의로운 삶의 당위성 |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각 찬양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국면들을 한 가지로 담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찬양들이 의의 기원과 믿음에 수반되는 요구,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의와 결단에 대한 이해를 매우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요소들을 코딩하고 주제화한 내용은 <표 6>에 제시되었다. 이처럼 각 가사의 의미요소들을 묶어 주제화한 결과, 우선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주제와 ‘믿음에 수반하는 요구’라는 두 개의 핵심 주제가 발견되었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요구라는 상위 범주로 묶여 제시되었다. 또한 ‘순례자의 삶’, ‘복음 전파의 삶’, ‘제자도와 사명의 삶’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로 코딩된 가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이라는 범주로 묶이어서 제시되었다.

<표 6>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결단에 관한 찬양 가사 범주화

| 범주 | 주제 | 의미요소 |
|---------------|--------------------|---|
| 하나님 나라의 요구 |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 |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자동차로 외제차를 타도 KTX를 타도 세상에 서 제일 빠른 로켓을 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나라 감.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존경도 받고 유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믿음 없으면 모두 다 헛된 것임. |
| | 믿음에 수반하는 요구 | 예수님 마음 닦고 천국에서 만날 것임. 주를 믿고 착한 행실로 흰옷 입은 자 복이 있음 구원하심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찾으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야 함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야 함. 세상의 유혹 떨쳐 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야 함.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 신 하나님의 뜻임. |
|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 | 순례자의 삶의 결단 | 그 날은 올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됨.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임.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 걸으면 두렵지 않음.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이 될 것임.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 은 더 많음. |
| | 복음 전파의 삶의 결단 | 복음에 빛진 자 모두 일어나 세상 향해 나아가야 함 주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열방 향해 전진해야 함. 주의 복음 전해야 함.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 열방에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심. |

| 범주 | 주제 | 의미요소 |
|----|----------------|--|
| | |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심. 예수님 그 사랑 진하는 우리는 천국의 영웅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구출하여 천국으로 인도해야 함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해 크게 외치겠음. |
| | 제자도와 소명의 삶의 결단 | 주의 나라 임하도록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함 주의 일에 힘써야 함. 세상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야 함. 늘 깨어 있고 잠들지 말며 주님과 동행해야 함.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기를 소망함.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실 것임. 우리는 하늘과 땅의 통로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것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 |

먼저 위의 <표 6>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길은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찬양들은 언급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자동차”, “로켓” 등 목표지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언급되고 “성공”, “존경” 등의 가치, 심지어 “전도”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언급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체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이해를 위의 찬양들은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사의 발견들을 래드의 성경적 이해와 비교해 볼 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언적으로 얻어지는 의”라는 측면에서 위의 찬양은 정확한 교리를 표현하였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믿음에 수반되는 요구’ 범주에 해당하는 가사는 “예수님 마음 닦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희구하거나 “주를 믿고 착한 행실로 흰옷 입은 자”의 복을 기원하고 “구원하심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사 등이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기를, 그리고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기를 소망하는 가사들인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제외시킨 채 착한 행실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이는 “믿음”과 “구원”이 전제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이해를 가사의 수식어를 통해 드러내었고 “주님과 함께” 가기에 그 길이 올바른 길이 된다는 이해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 구조를 통해 표현해 냈다. 이와 같이 이 범주에 소개된 가사들은 착한 행실을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기보다 구원하심을 믿은 이후에 그 믿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제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앞서 제시한 래드의

관점과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타내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가사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에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는 이해를 드러내는 가사들이 확인되었다. “그 날은 올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거나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 걸으면 두렵지 않다”고 서술하고 오히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해를 전제로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은 더 많을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망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로서 복음 전파의 의지를 표명하는 가사말도 상당히 많이 확인되었다. “복음에 빛진 자 모두 일어나 세상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표현하였고 “주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열방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의 복음 전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열방에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며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신다”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랑 전하는 우리는 천국의 영웅”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제자도와 사명의 삶을 촉구하는 가사말도 발견되었다. “주의 나라 임하도록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세상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을 내며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하늘과 땅의 통로”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본 분석 찬양 가사에 형상화된 순례자의 삶이나 의인의 고난에 관한 이해는 래드의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식화하였던 항목인 “여전히 경험하는 고난과 그 성화로서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 현현”이라는 표현으로 보다 잘 설명된다(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108). 성도의 현재적 고난은 죄의 모든 결과들이 이 시대에서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이 신약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사도행전 14:22; 베드로전서 4:12-13; 로마서 8:17-18). 따라서 본 분석 찬양 가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 속에서 순례자의 고난을 다수 언급한 점은 래드의 성경적 이해를 잘 반영하고 이해되었다.

마찬가지로 찬양 가사 많은 부분에서 확인된 복음 전파와 제자도의 삶의 중요성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기초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마태복음 24:14).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공로를 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일을 꿈꾸고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헌신을 요청한다(마태복음 6: 33; 13: 44-45; 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82). 어떤 이들도 모든 것을 포기할 자세가 없으며 철저히 희생할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희망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누가복음 14:28-32).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드리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며 당위인 것이다.

다만 본 찬양 가사들은 교리적인 표현을 사용할 뿐 아니라 이 가사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인지적, 정서적 영향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가사 작사에 반영하며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몇 군데에서 오류 가능성이 발견된다. 먼저 <Hero of Heaven>이라는 찬양은 “예수님 그 사랑 전하는 우리는 천국의 영웅”이라는 가사를 테마로 삼고 “We are the hero of heaven”라는 가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찬양이다. 여기서 우리를 영웅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구출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찬양은 청소년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일으키기에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찬양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어 수용되는 과정에 의미의 왜곡이 일어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물론 이 가사의 타당성 판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표면상에 드러난 몇 구절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자가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이러한 저작을 하였는지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일 것이다. 그러나 우선 찬양을 접하는 청소년들은 이 찬양 표면에 드러난 가사가 그들이 접하는 전부가 된다. 그러므로 찬양 가사 하나 하나, 특히 비유나 상징을 사용할 경우 매우 신중한 단어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이 찬양이 우리가 이곳에서 전도를 하고 친구를 구하였다는 이유로 천국에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칫 전도의 행위를 ‘영웅’이라는 단어에 가깝게 환유함으로써 지나친 공로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다니엘 12:3)는 말씀과 땅에서의 행위가 하늘의 상

급으로 연결된다는 말씀(히브리서 11:26)의 측면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아니다. 그러나 찬양을 선곡하고 제시하는 일의 목적은 다만 전도의 효과만 불러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각 찬양 가사가 아직 성경의 이해가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인지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깊이 있게 재고하면서 좀 더 치밀하고 신중하게 가사를 작사하고 선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찬양의 경우 래드가 명백히 하였던 ‘공로성이 없는 의로운 삶의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찬양 선곡에 있어 좀 더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의 경우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이라는 가사가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에서 생성되는 어떠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앞 뒤 문맥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의미 전달에 있어 많은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너희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점 역시 위험한 공로주의의 한 예로 이해될 수도 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본 분석대상 찬양 곡들에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현상학적 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의의 충만함에 대한 회구,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회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양식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회구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열망하는 삶의 형태인 제자도와 복음전파, 사명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 행위의 ‘공로’라는 위험한 발상이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음도 위의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4.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

재림의 그 날의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정신 역시 신앙 교육의 일부여야 한다. 교회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이미 성취된 승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만 미래의 소망만을 선포하는 것

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과 경험에 근거한 소망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Ladd, 1952, 원광연 역, 1997: 610). 그리고 그러한 소망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고 이러한 확신 속에 그 삶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성경말씀과 래드의 하나님 나라 이해를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과 확신함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도식화하면 <표 7>과 같다. 소망과 확신에 대한 표현은 아직 오직 얇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적용된다고 이해되어 그 해석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되었다.

<표 7>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에 대한 해석적 기준

| 범주 | 주제 | 해석적 기준 |
|-------------------|-------------------------------|---|
|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 | 구원의 시기와 구원받은 대상의 현재적 미지성(未知性) |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재림의 시기와 구원받은 이들 |
| | 깨어있어야 할 필요성 | 때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하여 경건한 삶을 통해 그날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야 할 필요성 |
| | 소망의 당위성 | 하나님 나라 도래를 소망하고 있어야 할 당위성 |
| | 확신의 당위성 | 하나님 나라 도래를 확신하고 있어야 할 당위성 |

이러한 분석적 기준을 가지고 찬양을 분석함에 있어 재림의 그날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 대한 이해가 나타난 구절을 각각 매우 세밀하게 코딩하고 이를 표로 나타내었다. 그러한 의미요소들을 코딩하고 주제화한 내용은 <표 8>에 제시되었다. 이처럼 각 가사의 의미요소들을 묶어 주제화한 결과, 우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알게 됨’이라는 주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점의 미지성’이라는 두 개의 핵심 주제가 발견되었고, 이는 ‘재림의 그 날’이라는 상위 범주로 묶여 제시되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 ‘소망에서 나오는 행위’의 두 가지 핵심 주제로 코딩된 가사들은 ‘하나님 나라 소망’이라는 범주로 묶이어서 제시되었으며 ‘하나님 나라 도래를 확신함’과 ‘하나님 나라 도래까지 함께하심을 확신함’이라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범주화되어 아래 <표 8>에 제시되었다.

〈표 8〉 하나님 나라 소망과 확신에 관한 찬양 가사 범주화

| 범주 | 주제 | 의미 요소 |
|------------------|-----------------------------|---|
| 재림의 그 날 |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알게 됨 | 주의 영광에 참여할 백성들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것임. 어리석은 악한 사람들 심판의 두려움 속에 떨게 됨. 뒤늦은 후회와 한탄 속에 이젠 돌이킬 수 없음. |
| |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점의 미지성 |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날이 오면 삶과 죽음이 펼쳐짐. 그 날이 도적 같이 이를 줄 알아야 하며 늘 깨어 주님과 동행 해야 함 |
| 하나님 나라의 소망 |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 |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노래함. 주의 나라 임하시는 것을 나는 선포할 것임. 저 하늘에 쌓아 둔 내 소망 있음.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자신을 노래함 영광의 주님 보게 하기를 소망함. |
| | 소망에서 나오는 행위 | 생명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주의 산에 오르자고 독려함. 주의 나라 임하도록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함. |
| 하나님 나라의 확신 | 하나님 나라 도래를 확신함 |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열방 모든 민족 주를 볼 것임. 하늘 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해 있음 하늘 나라 영광나라 저기저기 보임.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임할 것임.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날은 올 것임. 땀 흘려 일하던 주의 사람들 풍성한 열매를 노래할 것임. 바로 그 순간 잔치에 나아가 세상을 얻기 원함. |
| | 하나님 나라 도래까지 함께하심을 확신함 | 나팔소리 울리기까지 언제든지 함께 하실 것임.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두렵지 않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할 것임. |

먼저 찬양들은 ‘재림의 그 날’에 대한 이해를 드러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이라는 이해가 총 세 구절의 가사에서 드러났다. “주의 영광에 참여할 백성들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것”이며 그 날은 “어리석은 악한 사람들 심판의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날이며 “뒤늦은 후회와 한탄 속에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날인 것

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점의 미지성(未知性)’에 관한 이해가 한 구절에서 드러났다.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날이 오면 삶과 죽음이” 펼쳐진다는 가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재림의 그 날’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며 그 날은 곧 삶과 죽음이 갈리는 심판의 날이라는 관점을 투영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대하고 사모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가 추출되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단순히 “저 하늘에 쌓아 둔 내 소망”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찬양하는 자신을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영광의 주님 보게 하기를 소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소망을 행동으로 나타내 표현하기도 하였다. “생명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주의 산에 오르자”고 주위 사람을 독려하는 가사나 “주의 나라 임하도록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유하는 가사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도 다수 발견되었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열방 모든 민족 주를 불” 것이라고 선언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하늘 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해” 존재하며 “하늘 나라 영광나라 저기저기” 보인다고도 표현하였다.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날은 올 것”이라는 가사와 “땀 흘려 일하던 주의 사람들 풍성한 열매를 노래”할 것이라는 가사도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도래를 단언하는 표현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도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해도 가사로 형상화 되었다. “나팔소리 울리기까지 언제든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가사와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두렵지 않다”는 가사, 그리고 “모든 열방 주 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할 것”이라는 가사가 모두 그러한 이해를 드러낸다.

이러한 세 범주의 찬양 가사를 성경과 래드의 하나님 나라 이해의 해석적 기준에 비추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원의 시기와 구원받은 대상의 현재적 미지성(未知性)’이라는 주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더 긴장되는 영적 준비를 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래드의 이해를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의 주제를 가진 가사들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점의 미지성(未知性)’에 대한 가사들은 ‘재림의 그 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이해되었다. 성경에

따르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을 규정하게 된다(베드로후서 3:9).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로마서 13:12-14). 앞서 살펴보았듯이 래드는 ‘그날을 알 수 없음’의 이유를 ‘깨어있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Ladd, 1952, 원광연 역, 1997: 599-600). 따라서 찬양가사가 재림에 관한 바른 관점을 청소년들에게 전해줄 하나의 채널로서 활용된다면 청소년들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기제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 하나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점이다(베드로후서 3:11-12; 디모데후서 4:8). 우리의 분석대상 찬양 중에서 총 8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과 행위가 드러났다. 사실 재림에 대한 대망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 나라를 위해 더욱 충성되게 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현세를 부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현재 소유한 그 승리의 축복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더 큰 것을 회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벌코프(Berkhof, 1969: 19-20)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란 “소유와 결핍의 열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대상 찬양 가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구현되고 또 그 소망함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를 신앙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과 삶을 개혁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나아가 래드(Ladd, 1952, 원광연 역, 1997: 136)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뜻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 사모함에는 행위와 사명이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 찬양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만 소망할 뿐 아니라 반드시 도래하리라고 확신을 표현하는 부분들은 이 찬양들을 실제적으로 부르며 영향권 내에 있게 될 청소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확신하는 일에서 행동이 수반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위의 장에서 이미 면밀히 살펴본 바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다만 확신의 표현에만 국한하여 논의한다.

우선, 위에 제시된 찬양 중 <그 날에>라는 찬양은 의미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선곡할 것이 요구된다. 이 찬양에서 “바로 그 순간 잔치에 나아가 세상을 얻기 위해”라는 가사는 다양한 해석적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는다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요한계시록 2:26).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권세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지 현재 우리로서는 전모를 알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에조차 ‘무익한 종’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누가 복음 17:10). 또, 이처럼 세상을 얻기 원하는 모습은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에 앉혀 달라는 제자들의 권력욕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마태 복음 20:21). 따라서 이처럼 “세상을 얻기 위해” 재림의 그 날을 기다린다는 가사가 찬양에 표현되는 일은 신중한 점검과 수정을 거친 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래드(Ladd, 1952, 원광연 역, 1997: 24)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악한 세상 가운데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에 마음을 쏟게 한다고 표현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찬양을 통하여 종말이 임박했다는 긴박감 속에서 복음 전파의 힘과 하나님 통치의 윤리도 다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찬양 곡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며 이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투영하는 찬양은 하나의 기도 행위이다(정장복, 1985: 124).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찬양 자체가 그 나라를 앞당기는데 동역하는 사역이며 헌신이다. 청소년 성도들이 이러한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확신하는 기도로서 올려 드리도록 지도하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하고 풍성한 이해를 드러내는 찬양들로 선곡하고 제시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교육적 의도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안

예배 중 부르는 찬양은 예배의 일부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당위요, 믿음의 선포이다. 또한 교리 전달의 매체이고 열정 어린 기도의 일부이다. 따라서 찬양은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각적이고 풍성한 이해와 고백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이를 소망하게 하며 이러한 소망이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나 모임에서 자주 들려지는 찬양들 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드러난 31곡을 선정하여 이들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사 내용을 세부 의미 요소로 나누고 의미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제로 범주화하여 코딩하였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중적 이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폈고 다음으로는 그 현상학적 특징, 요구와 결단, 소망과 확신이라고 하는 요목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가사를 주제화하고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가장 많았으며(18곡, 58.1%) 현재성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도 적지 않았다(9곡, 29.0%).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는 찬양도 있었다(4곡, 12.9%). 이러한 비율은 하나님 나라의 두 층위를 다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찬양 가사들에 있어 두 국면 모두가 다각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해석되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종말론적 개념이라는 래드(1997: 180-181)의 이해에 기초해 볼 때, 미래성에 보다 많은 비중이 할애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상학적 묘사에 관한 가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와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현상학적으로 유사한 표현이 많았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본질에 있어 두 나라는 같은 점들을 공유한다고 언급한 래드(1997: 566-567)의 이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모두에서 육체의 자유함을 언급하였는데 영생과 부분적 치유라는 점에서 두 나라 간 차이점이 드러났으며, 가시적 통치와 비밀스러운 전개, 의의 완전한 실현과 제한성의 측면도 두 나라에 대한 표현에서 각각 드러났다. 그리고 이는 래드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결단이라는 관점 역시 찬양 가사에 다수 나타나 있었다. 찬양 가사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유일한 길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는 당위의 영역이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의와 윤리의 수준을 갖추고 순례자의 삶과 복음전파, 제자도와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 가사에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결단이 강조된 찬양들 중에는 인간의 전도나 행위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찬양들도 있어 이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청소년들의 의미 형성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찬양을 선곡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선곡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적 안목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넷째, 본 연구대상 찬양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어서 속히 임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가사를 담고 있었다. 또한 이 나라가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기를 결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가사 말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찬양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앞당기는 하나의 행위로 해석되었다(예레미야 29:12; 마가복음 9:29; 디모데전서 4:5). 이러한 점에서 찬양은 하나의 기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선포는 청소년의 삶에 깊은 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표명된 청소년들의 찬양에는 앞서 제시한 일부 찬양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층적이며 정확한 이해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찬양은 일종의 교육이며 하나님 역사의 기억함이고 기도 행위이면서 믿음의 선포이다. 이러한 점을 상기해 볼 때 우리의 찬양 선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층위와 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이를 위한 사역에의 동역함과 결단 등이 찬양에서 올바르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찬양의 교육적 텍스트로서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가져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본 연구는 청소년의 찬양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의 차원까지 함께 수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추후 연구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가사의 찬양을 실제로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찬양 텍스트의 교육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많이 불

리지는 찬양들을 대상으로 그 찬양 가사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의미의 해석적 중요성을 드러내고 성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가사의 의미 영역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찬양 선곡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담긴 찬양을 폭넓게 선곡할 뿐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 진리가 반영된 찬양을 제시하여 청소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향되거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지 않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고, 이로써 궁극적인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이러한 소망 때문에 현재의 제자로서의 삶에 긴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소라 (2008). “시편과 예배: 하나님을 기억함에 관하여.” 『한국개혁신학』, 24. 40-58.
- 장영한 (1988). “21세기를 위한 예배의 신학.” 『21세기 예배의 새 모델』, 서울: 숭실대기독교문화연구소. 30-48.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I』. (2nd ed.).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한 (2008). “포스트모던 시대의 올바른 예배.” 『한국개혁신학』, 24. 7-39.
- 문용식 (2003).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성.” 『신학지남』, 70(4). 130-158.
- 박희석 (2003). “칼빈과 음악.” 『신학지남』, 70(2). 72-110.
- 이승구 (2000).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 『교회와 문화』, 4. 122-160.
- 이철 (2006). “한국교회 기독교 문화의 현실과 대안: 찬양 예배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13. 285-310.
- 정장복 (1985).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 주지은 (2007).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들의 찬양 선호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9(1). 23-44.
- Appleyard, J. A. (1991). *Becoming a Rea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thon, P., Pitt, L., Ewing, M., & Carr, C. L. (2002). “Potential research space in MIS: a framework for envisioning and evaluating research replication, extension, and gener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3(4), 416-427.
- Berkhof, L. (1951).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 _____ (1969). *Well-founded Hope*. Richmond: John Knox.
- Clark, R. and Zuck, R. (1975).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신청기 역 (1989). 『교회의 아동교육』. 서울: 생명의 말씀사.
-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oekema, A. A. (1979). *The Bible and the Future*. 류호준 역 (2002).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Ladd, G. E. (1959). *The Gospel of the Kingdom*. 신성수 역 (1982).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_____ (1952, 1959, 1974). *The Gospel of the Kingdom: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The Presence of the Future* (이상 세 권의 합본) 원광연 역 (1997). 『하나님 나라』.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_____ (1978). *The Last Things: An Eschatology for Laymen*. 이승구 역 (2000). 『개혁주의 종말론 강의』. 서울: 이레서원.
- Rayburn, H. Y. (1904). *John Calvin*. London: Hodder & Staughton Ltd.
- Ridderbos, H. N. (1957).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오광만 역 (1992).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반석문화사.
- _____ (1958). *Paul and Jesus*.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 Vos, G. (1951) *The Teachings of Jesu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ABSTRACT

A Content Analysis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Texts of Praise Songs for Adolescents

Eun-Ja Hyun (Sungkyunkwan University)

Ra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xts of praise songs concerned with the Kingdom of God and to discuss the adequateness of those that adolescents are frequently singing in their worship.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total 31 songs by the survey through 107 religious workers serving in church department for adolescents. Those song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through a segmentation into meaning elements, open coding, topicalization and categorization. The categorized contents were discussed based on Ladd(1982; 1997; 2000)'s understanding of the Kingdom of God.

As a result, there was a balanced reflection in the notions of futurity, nowness and duplicity of the Kingdom. Among them, the songs dealing with the futurity accounted for the highest portion and this result were interpreted as an exact reflection for the Ladd's idea of that the ultimate future Kingdom of God is fundamentally apocalyptic. And, there were both common and different descriptions between two kinds of notions on Kingdom in the phenomenological portrayals. There were love, rightness, healing, peace in the texts on both Kingdoms. On the contrary, one comes out as a God's complete and visible reign; the other in secret. One is characterized by the perfect realization of rightness; the other by a limited form. Also, the condition for entering the Kingdom was obviously presented in the songs: that is the faith only towards Jesus Christ and there is no exception. The present Kingdom of God is depicted as growing in itself; however, the co-work with God and the determination of Christians to put forward the Kingdom were strongly reflected as a necessity in those texts. Finally, the texts of the praise songs showed the earnest wish and confidence for the advent of the apocalyptic

Kingdom of God and they were understood as a prayer and a driving action for the fulfilling the wish. However, the contents inadequate for the analysis frame above, such as the emphasis on our contribution,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hrases of bible and Ladd's understandings of the Kingdom of God. Based on those findings, this study speculated the importance of selecting the praise songs in adolescents' worship.

Key Words: the Kingdom of God, praise songs for adolescents, futurity, nowness, Ladd

